

## “세상안에서 마리아니스트 영성을 깊게 살기”

인천 MLC 회원들은 “세상안에서 마리아니스트 영성을 깊게 살기”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성서와 전례력 안에서 마리아의 삶의 태도를 묵상하면서, 개인과 공동체가 마리아처럼 살기 위해 성찰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화상 공동체 모임(줌)으로 ‘주님 저를 약하게 하소서’(켄틴 헤켄워즈 신부 지음)를 연구하며 마리아니스트 영성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공동체는 SNS를 통하여 복음과 창립자의 말씀등을 공유하면서 회원간 영적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창립자의 영성을 알고 심화하기 위하여 아델 수녀님의 편지를 주제별로 분류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빨리 분류 작업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작업은 많은 시간과 참여자들의 열정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회원들이 편지를 통하여 아델 수녀님의 영성을 잘 알고, 생활 안에서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기에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수 년간 해오던 교구내의 병원의 전례봉사와 요양원의 음악봉사는 방역 수칙에 의하여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원들은 지역사회의 공부방과 결혼 이민자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의 학습지도와 결혼 이민여성을 위한 상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농상생활동으로 농촌의 생산 농산물을 도시민들에게 회원들과 도시민들에게에 직거래 판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을 직접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불안한 미래로 내몰았지만 하느님께서 각자에게 베푸시는 희망의 날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난하고 고통 받는 이웃들의 희망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존재 자체로 그들의 입가에 환한 미소를 짓게 할 선물이 되게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헌신하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느님께서는 놀라운 지혜로 이 세상살이의 십자가와 위로를 뒤섞어 놓으신다는 것을 알게 되길 바란다." (아델수녀님의 편지 No 199.4, 1813년)

## 인천MLC 소식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방역차원에서 프라스틱 용기의 사용이 급속히 늘어 났습니다. 이에 인천MLC들은 9월 1일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환경 보호 단체에서 하고있는 'NO 플라스틱' 서약과 동참 독려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국적인 환경보호 운동으로, 인천 MLC도 공동체별이나 개인별로 생활 안에서 플라스틱 용기를 줄이겠다고 서약하고, 제일 먼저 플라스틱 물병과 일회용 커피용기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올해의 성모님 케냐 수부키아 성모님을 모시고 10월 10일 세계마리아니스트 기도의 날을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에 의하여 모든 회원들이 함께 하지는 못하였지만 각 공동체의 대표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미사는 10월9일 사제서품되신 기민영(미카엘) 새신부님께서 미사를 집전하여 주셨고, 신부님께서 초심의 마음으로 한평생 사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사진설명: 'NO 플라스틱' 서약

10월 10일 세계 마리아니스트기도의 날을 끝내고